보고 및 토론자료

- 보고 : 건설기술·건축문화 선진화 전략(안)
- 토론 : 공공발주제도 개선

2006. 6. 15

대통령자문 건설기술·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
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al Culture & Construction Technology

보고자료

건설기술·건축문화 선진화 전략(안)

2006. 6. 15

대통령자문 건설기술·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
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al Culture & Construction Technology

목 차

Ⅰ. 추진배경 ····· 1

Ⅱ. 현황과 문제점 진단 ····· 4

Ⅲ. 국내외 혁신사례 ····· 13

Ⅳ. 정책방향 ····· 18

Ⅴ. 부문별 추진방안 : ACCT 1233 ····· 21

Ⅴ-1. 12대 핵심과제 ····· 21

Ⅴ-2. 3+3 현장실천운동 ····· 45

Ⅵ. 추진계획 ····· 50

※ 붙임 : 세부 혁신과제 리스트

Ⅰ. 추진배경

1. 보고목적

□ 우리의 건설산업은 주택공급과 SOC 건설 등으로 국민 **주거안정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**

○ 그러나, **예술성 및 품격이 있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고, 기술경쟁력을 확보**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

□ 21C 기술·문화선진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적 혁신과제 수행을 위하여 **'선진화위원회' 출범** ('05.12.21)

○ 민간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**'선진화전략(안)'**을 마련하였기에 보고회를 거쳐 **선진화의 기본방향으로 설정**

<대통령 지시내용>

► 건설기술, 건축문화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하여 **대통령 주관 '위원회' 설치** 검토 지시('05. 3. 7, 건교부 업무보고)

* 건강을 고려하는 도시가 되도록 정부가 개념과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지시('05. 3. 18, 보건복지부 업무보고)

* 프랑크푸르트와 같이 작지만 아름답고 숲과 물(운하)과 문화가 있는 '살기좋은 도시만들기' 검토 지시('05. 4. 8, 독일방문)

► 자연과 조화되는 예술적 건설이 필요하며 위원회에서 **건설기술, 건축문화 통합 혁신대책** 마련 지시('05. 12. 21, 위촉장 수여식)

► 건축 관련 제도부분에 대하여 **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** 개최 ('06. 4. 21,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 보고)

2. 추진경위

□ **'건설기술·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' 출범** ('05. 12. 21)

□ **제1차 본회의 개최** 및 향후 업무 추진방향 설정 ('05. 12. 29)

○ '건설기술·건축문화 선진화 전략' 작성방향 논의

○ 운영세칙 제정, 분야별 민간전문가 그룹 구성 등

□ '선진화 방향과 실천'에 대한 **정책토론회** ('06. 1. 20, 세종문화회관)

○ 발주 및 입낙찰제도의 조속한 개선

○ 건축·도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

○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과 '함께하는 건축문화' 형성 등

□ 현장 중심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한 **'건설기술·건축문화 선진화연대' 결성** ('06. 2. 22)

○ 공동의장 : 선진화위원장, 건설교통부장관

○ 참여단체 : 건축학회, 토목학회, 국토연, 건기연, 건축사협회, 건설협회, 주공, 토공, 관광공사, 농촌공사 등 46개 단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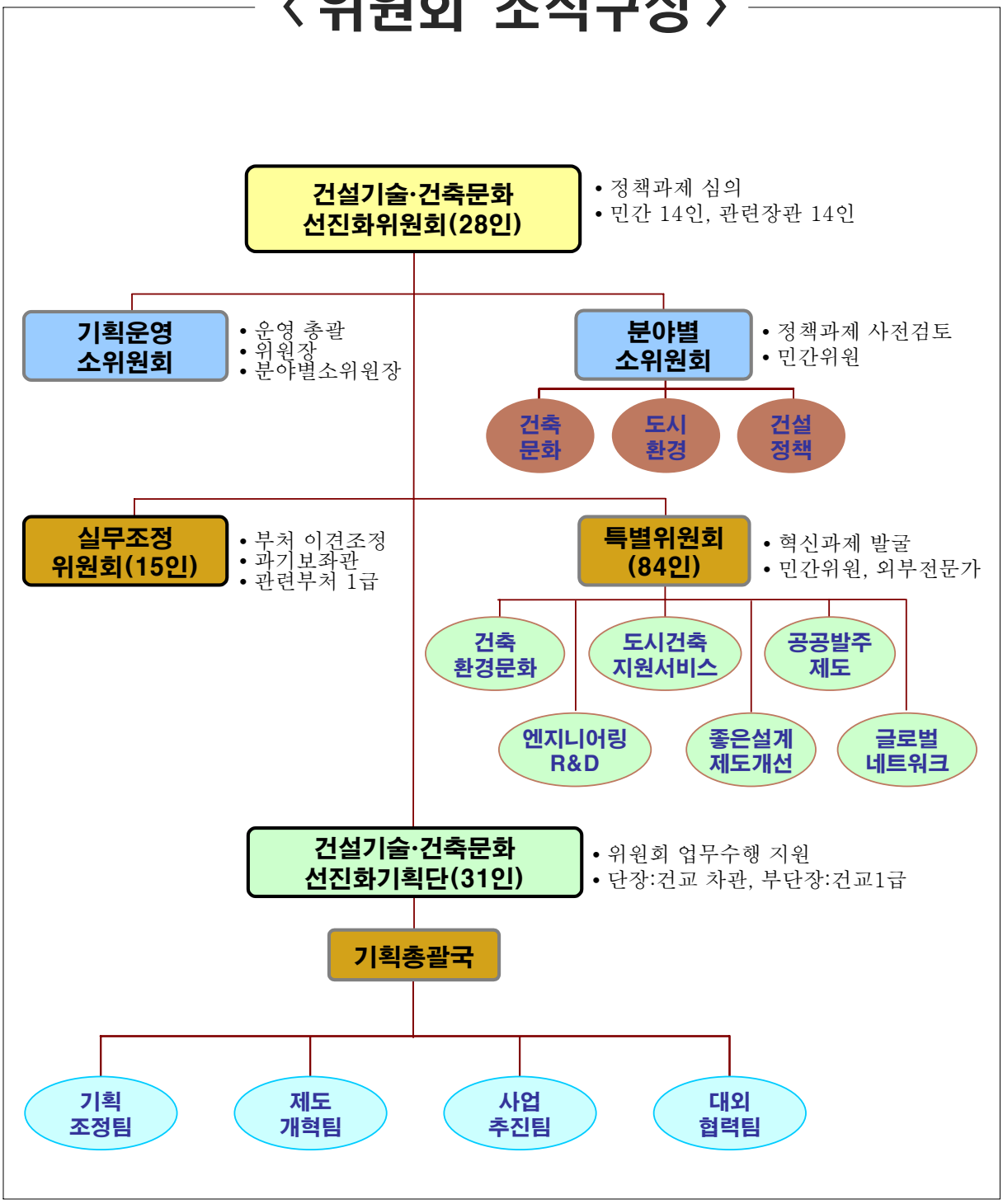
○ 주요활동 : 선진화포럼, 이견조정, 현장실천, 우수사례 확산

► 제1차 선진화포럼 ('06. 4. 26, 코엑스)
· 건축·시설물에서 걸작이 나오지 못하는 6가지 이유 및 개선방안 (발주·예산 개선, CM활성화, 설계·시공 연계, 현상설계 확대, 설계대가 개선, MA/MP/DC 확대)
· 건설생산체계 개선을 위한 '현장협의회'를 구성·운영키로 함

□ 민간전문가(6개 특위, 84인) 중심으로 분야별 혁신과제 발굴, **제2차 본회의** 검토를 거쳐 **'선진화전략(안)' 마련** ('06.1~6)

※ 건설기술·건축문화 진단 및 발전방안 전문가 설문조사 ('06.6)

〈 위원회 조직구성 〉


건설기술·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(28인)
• 정책과제 심의
• 민간 14인, 관련장관 14인
기획운영 소위원회
• 운영 총괄
• 위원장
• 분야별소위원장
분야별 소위원회
• 정책과제 사전검토
• 민간위원
건축 문화
도시 환경
건설 정책
실무조정 위원회(15인)
• 부처 이견조정
• 과기보좌관
• 관련부처 1급
특별위원회 (84인)
• 혁신과제 발굴
• 민간위원, 외부전문가
건축 환경문화
도시건축 지원서비스
공공발주 제도
엔지니어링 R&D
좋은설계 제도개선
글로벌 네트워크
건설기술·건축문화 선진화기획단(31인)
• 위원회 업무수행 지원
• 단장:건교 차관, 부단장:건교1급
기획총괄국
기획 조정팀
제도 개혁팀
사업 추진팀
대외 협력팀

Ⅱ. 현황과 문제점 진단

1. 미래사회의 환경 변화

□ 미래 사회의 변화 전망('05년, 과기부 예측)

○ 미래사회는 고령화, 물 부족, 대기오염, 온난화 문제 직면

○ 고령화·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·공간적 통합기술과 지능형·고효율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·도시건설 필요

※ 미래사회 주요이슈 : 지속가능발전, 물 부족, 인구정체와 고령화, 빈부격차, 정보통신기술, 에너지, 과학기술 등(UN미래보고서)

□ 환경문제 심화 및 국제적 환경규제 직면

○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대상국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며('13년), **국내산업에 큰 변화 예상**

- 국가 CO_2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, 에너지 과소비형 건설산업을 **에너지 저감형 친환경산업으로 전환** 필요

※ 건축물(생산, 사용)이 전체 CO_2발생의 30~40%, 에너지 사용의 40%차지

○ 환경문제와 에너지·자원의 부족문제 등으로 인해 **첨단 친환경 도시개발**(U-Eco City 등)의 필요성 증대

□ 건축문화 욕구의 증가

○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삶의 질 개선과 건축문화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, **건축문화 인프라는 부족**

※ 1인당 국민소득 증가 전망('03년 : 12,030$ → '20년 : 31,000$)

※ '06년 경향하우징페어는 총 55만명(하루 평균 9만여명)이 참관

○ 행복도시와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시기로서, **도시건축의 문화경쟁력을 확보**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

2. 대내외 여건 변화

□ 시장 개방과 경제블록화 등으로 경쟁 심화

○ WTO DDA 협정, FTA 체결 등으로 개별 국가경제가 **하나의 세계시장으로 통합되는 추세**

※ WTO DDA(다자간 무역협정)협정 체결시 건축사 등 10개 직종 개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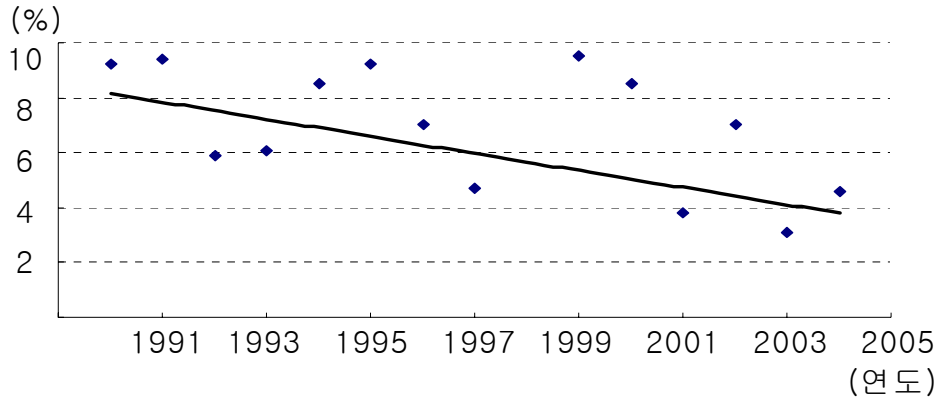
※ 우리나라는 '04년 칠레, '05년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으며, 일본, 미국, ASEAN 등 20여개국과 협상 진행 중

○ 한편으로, 급속한 세계화에 대응하여 **경제블록화를 통해 시장을 보호**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

※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, 유럽연합(EU), 동남아국가연합(ASEAN) 등

□ 경제성장의 둔화

○ 최근 3~4% 수준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서, 건설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**해외진출이 필수적**



□ 건설기술의 표준확보 경쟁 심화

○ 건설분야는 **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기술표준화 경쟁**

- 유럽의 Eurocode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(50여개국 표준), 미국은 ICC Code를 제정하여 국제표준 확보 경쟁 참여

3. 우리의 문제점 진단

[건축문화와 도시환경]

□ 품격 낮은 건축물

○ 도시화,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공급에 치중한 결과, **성냥갑 아파트와 농촌지역의 나 홀로 아파트** 등 품격과 경관 훼손

※ 주택보급율 : 71.2%('80년), 72.4%('90년), 96.2%('00년), 102.2%('04년)
('80년대 25만호/년, '90년대 58만호/년, '00년 이후 52만호/년 공급)

○ 좋은 건축에 대한 건축주의 관심이 부족하고 건축가가 작가 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**제도적 환경이 취약**

○ **건축을 담당하는 정부조직 취약**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

※ 전담인력은 건교부 건축기획팀 16인(민원 13,000건/년, 1인당 812건)

□ 한국 고유의 정체성 부족

○ 고유의 건축문화(이미지, 형태, 재료 등)를 발굴·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**한국적인 고유 이미지 창조 실패**

○ **전통·건축문화자산이 일제시대와 6.25전쟁 중 파괴**되고, 근대화과정에서도 관심부족으로 다수 소멸

※ 화신백화점, 스카라 극장, 단성사, 대한증권거래소건물 등 멸실

<화신백화점>

<단성사>

□ 도시의 부조화

○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위해 스카이라인, 건물 높이, 형태 등을 관리하는 **3차원의 체계적인 도시공간 및 경관계획 부재**

- 필지별로 해당 법규만을 충족하면 되는 건축허가방식으로, **주변경관을 고려하지 않고** 개별적으로 건축물이 건설

※ 3차원의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하였으나('00.7) 개발사업지구 등만 대상

○ 광고물 규정은 있으나 획일적이고 세부적 단속도 어려워 사실상 통제 불능의 **간판난립으로 도시경관 훼손**

※ 전체 간판의 19.2%가 불법 간판(행자부, '01)

□ SOC 및 가로시설물, 공원의 획일적 디자인

○ 교량, 도로 등 **SOC시설은 경관형성의 중요한 요소**이나, 경제성과 기능성만 고려하여 건설

※ 설계심의 기준 등에 미관, 예술성을 고려하는 항목이 없음

○ 육교, 정류장 등 가로시설(Street Furniture), 가로조경, 공원은 도시의 얼굴이나, **SOC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인식**

※ 가로시설, 공원 등에 대한 설계경기제도가 없으며, 기술공모로 부분적 디자인경쟁이 가능하나 발주기관의 관심부족으로 적용실적 극히 저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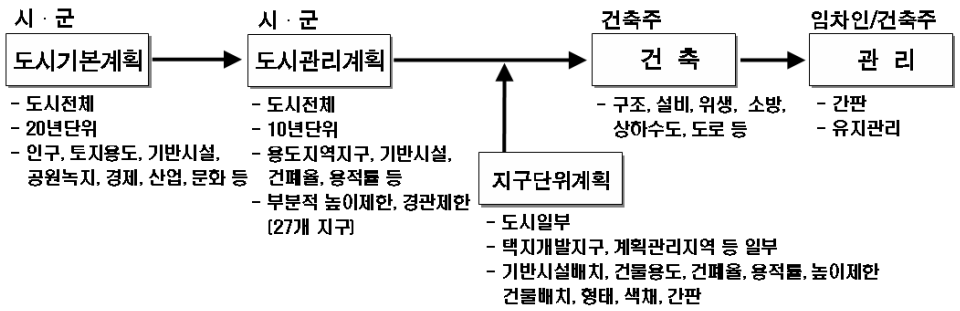
<선유도 공원 : '건축환경문화' 선정작>
- 서울시장 방침으로 설계경기 (국내작) -

<아쿠아 아트 육교 : 서초동>
- 민간이 초청설계 (프, 잘리콩)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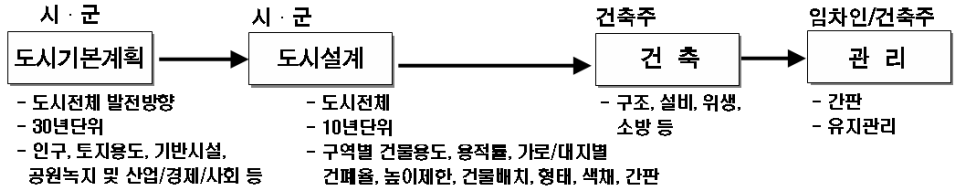
도시건축 경관제도 비교

구 분	우리나라	주요 선진국	시 사 점
경관관리 계획	2차원 공간관리 · 전체 2차원(용도지역) · 주요지구 3차원	3차원 공간관리 · 도시전체 3차원 설계	체계적인 3차원 공간관리 · 경관법 제정 · 경관기본계획 수립
디자인 전문가	부분지원(자문) · 도시계획·건축 심의 자문 · 용역업자로 취급	총괄계획 및 관리 · 총괄계획가(MA/MP) · 디자인커미셔너(전체총괄) · 국가건축가(정책,국가사업)	디자인 전문가에 의한 경관관리 · 전문가 참여 제도
설계경기 (현상공모)	건축분야 일부 활용 (공개경쟁) · 건축설계분야에 활용	광범위하게 활용 (공개,지명경쟁,수상자) ·건축, 도시설계, 조경 ·가로 및 SOC시설 활용	창의력 활용 극대화 · 다양한 설계경기 방식
건축허가	관련법률 많고 복잡 · 건축,도시,소방,전기 등 (80여개 법률 각각 규제)	체크리스트만 확인 · 일관된 체계 (창의력 최대 발휘)	법령의 체계적 정비 · 건축기본법 제정 · 건축관련 법령 체계적 정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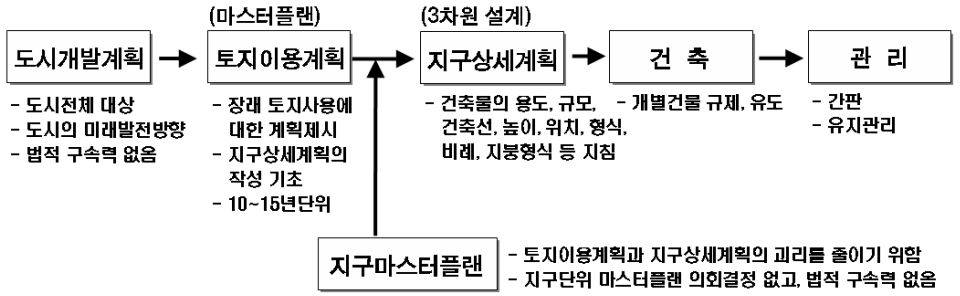
〈국내〉



〈프랑스〉



〈독일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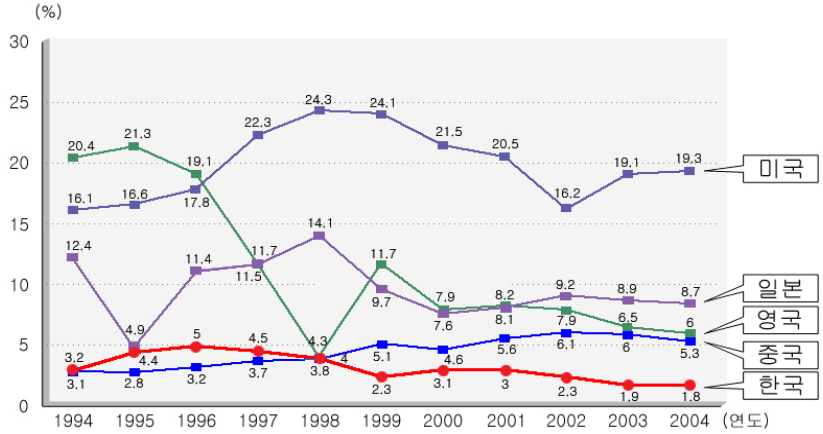


[건설기술과 건설산업]

□ 고부가가치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부족

○ 건설기술은 선진국의 71% 수준으로 경쟁력이 **부족하고,** 중국, 동남아보다 건설비가 비싸 **해외시장 점유율 지속 하락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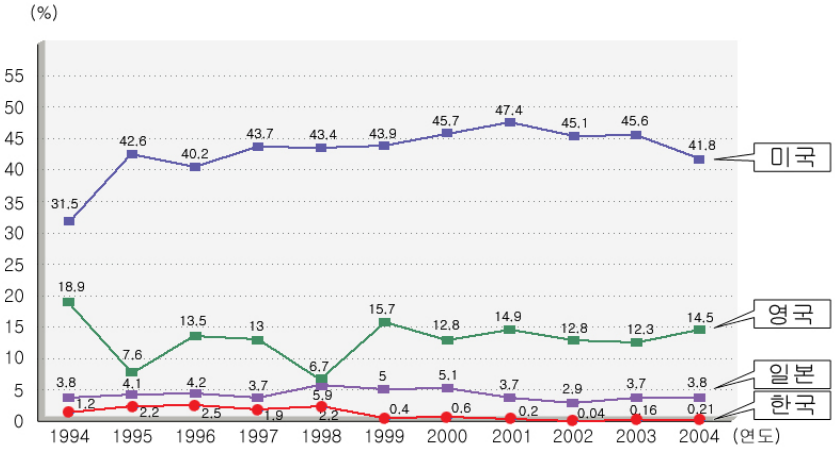
※ 해외건설 수주 : 140억 $('97년), 44억 $('01년), 75억 $('04년), 109억 $('05년) ('04년 이후는 중동 특수 영향 등으로 상승)



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(시공부문, ENR誌)

○ 특히, **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**(기획, 설계, 사업관리 등) **분야가 취약**하며 해외시장 점유율이 0.21%에 불과

※ 삼성이 '버즈두바이' 공사를 수주했으나, 기획, 설계 등은 미국 터너사가 담당



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(엔지니어링부문, ENR誌)

□ 건설 R&D 투자 및 실용화 미흡

○ **건설분야 R&D**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저조

- 정부 R&D는 전체예산의 4.4%이며, **건설교통 R&D는** 최근 대폭 확충하고 있으나 **1.5% 수준**

<공공부문 예산 대비 R&D투자 비중> (단위: 억원)

구 분	2002년	2003년	2004년	2005년	2006년
전 체	51,583 (2.9%)	55,249 (3.0%)	60,847 (3.3%)	77,996 (4.0%)	89,096 (4.4%)
건설교통	649 (0.5%)	730 (0.4%)	753 (0.5%)	1,519 (0.8%)	2,620 (1.5%)

- 민간 R&D도 **매출액대비 0.8%**로 타분야에 비하여 저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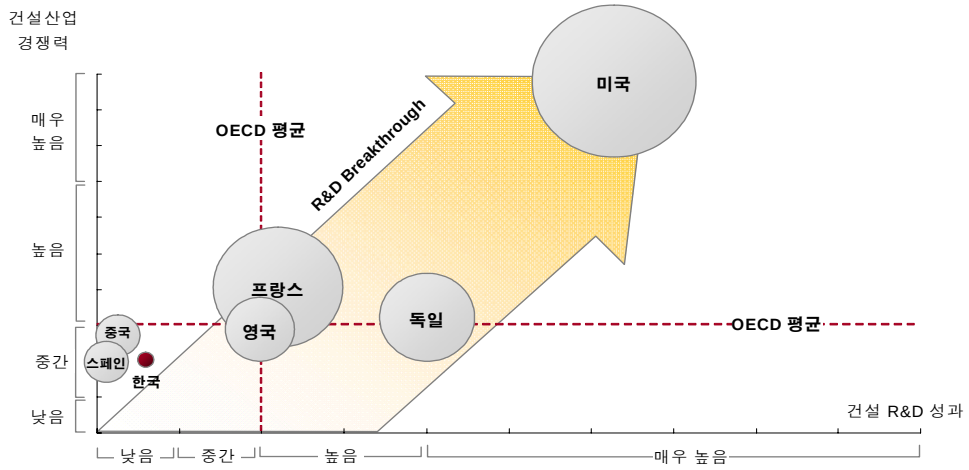
<민간부문 매출액 대비 R&D투자 비중>

구 분	2001년	2002년	2003년	2004년
전 체	2.3%	2.2%	2.3%	2.3%
건설교통	0.9%	1.0%	0.9%	0.8%

※ **건설분야는 세계최고수준의 기술 보유건수 전무**
(전체 1,900건 중 생명공학, 정보통신 등 타 분야에서만 14건 보유)

○ 기술이 아닌 가격위주의 경쟁체제로 **신기술, 신공법 개발 동기가 부족하**고, 개발된 기술도 현장검증 부족으로 사용 기피

※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485건이나, 활용실적은 141건(약 29%)에 불과



(OECD, ENR, ADL Analysis)

□ 건설생산시스템의 왜곡

○ 공정성·투명성 위주의 공공발주제도가 운영되어, **기술력과 디자인능력 중심의 선순환 경쟁시스템 부재**

- 사업특성, 발주기관의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**획일적인 중앙조달방식의 발주시스템**

※ 공공발주현황 : 최저가낙찰(10.7%, 300억원 이상), 적격심사(50.9%, 300억원 미만), 턴키·대안입찰(38.4%, 심의로 결정)

- 기술력, 품질에 대한 검토 없이 가격위주로 심사하는 **입낙찰제도는 '운찰제(運札制)'로 변질**

※ '적격심사'는 추첨으로 결정되는 예정가격이 낙찰의 주요 요인이며, '최저가'의 저가심사는 평균입찰가격이 중요하여 運札制 성격

- 유리한 공법, 자재 등 기술대안 제시가 곤란한 **단가 기입식 응찰방식은 기술경쟁을 저해**(턴키·대안입찰에서만 가능)

※ 건설CEO 설문결과, **최우선 개선과제로 '입낙찰제도'** 지목(30.3%)

○ 기획, 설계, 시공 등으로 구분되어 연계성이 부족하고, **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CM방식의 활성화 미진**

○ 설계업체 선정시, 기술 및 디자인 공모 등에 의한 **경쟁방식의 적용이 어려움**

- 설계비용도 검토의 난이도를 감안한 실소요비용이 아닌, **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산정**

※ 복합검토 생략으로 '과소설계'되거나, 설계비 환수방지를 위해 '과다설계' 사례 방지를 위해 미국, 일본 등에서는 실소요비용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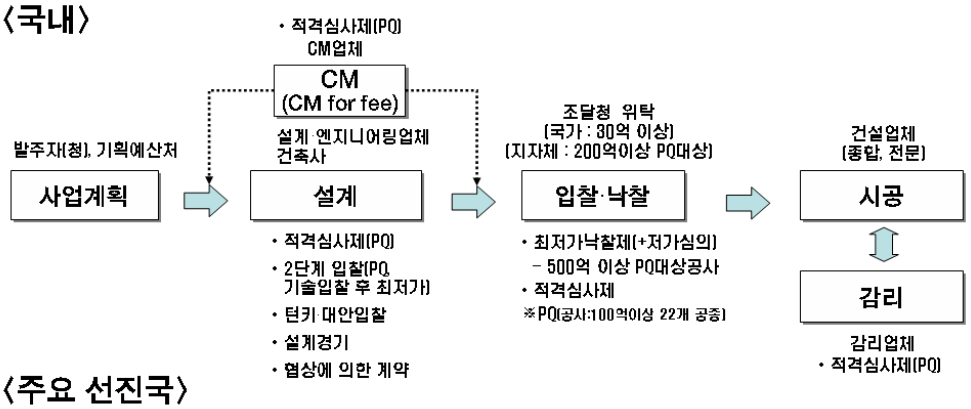
○ 공기단축에 대한 의식도 부족하여 **전반적 경쟁력 악화**

※ 건축물의 경우, 미국보다 공기는 1.5~2.4배, 공사비는 9~53% 많이 소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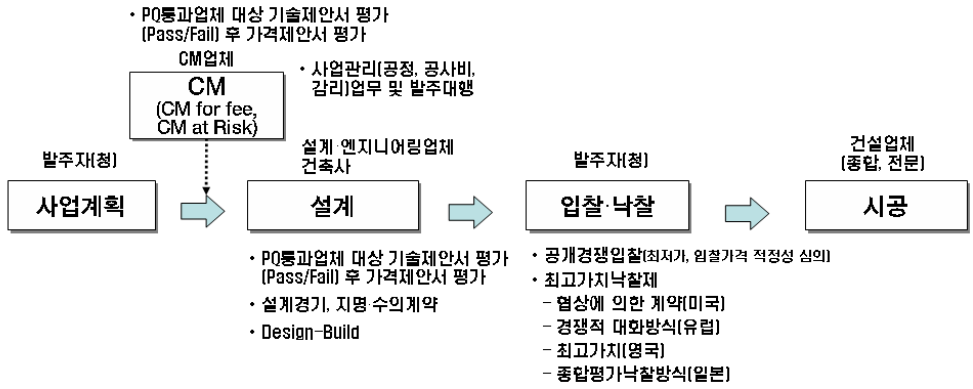
건설생산 프로세스 비교

구 분	우리나라	글로벌 스탠더드	시 사 점
사업관리 (기본이념)	단계별 분리 (기획·설계·시공·감리) ·공정성, 투명성만 강조	총괄, 체계적 관리 (PM/CM 활용 등) ·최고가치(Best Value)추구 (다양한 프로세스)	민간 전문성 활용 ·새로운 패러다임
설 계 (설계자) (설계비)	가격 경쟁 ·일반경쟁(PQ+가격) ·공사비 비율/평당단가 (과다 또는 과소설계)	기술 경쟁 ·일반·지명경쟁·기술제안 ·실제작업량(최적설계)	품격, 경제성 확보 ·다양한 방식 활용 ·합리적인 설계비 구조
시 공 (발 주)	획일적 운영 ·중앙조달방식 ·획일적(300억이상 저가)	사업특성 고려 ·발주기관 재량 존중 ·다양함(발주매뉴얼)	고품질·저비용 경쟁 시스템 ·조달 및 발주기관 협력 ·다양한 발주방식
(낙 찰)	·운찰제(적격심사) ·가격으로 심사(저가심사)	·최고가치 지향 ·기술가능성 검토(저가심사)	·기술, 품질 우선고려
(공사비)	·기술대안 제시 불가 ·설계변경 허용 (설계검토 책임 : 발주자)	·유리한 공법, 재료 제시 ·설계변경 불허 (설계검토 책임 : 시공자)	·유리한 공법 선택 ·설계변경 억제

〈국내〉



〈주요 선진국〉



Ⅲ. 국내외 혁신사례

1. 선진국의 혁신사례

□ 건축정책 혁신

네덜란드의 건축정책

- 정부주도 건축정책(Space for Architecture) 수립('91년)
- 국가건축가가 정책 및 프로젝트 발주 참여('00년)
- 건축센터를 다수 설립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선도 작업 기획
- 건축문화 연구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
  - ·건축협회, 건축지원재단, 베를라헤재단 등

프랑스의 건축정책

- 건축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 시행('77년)
  - ·주변과의 조화, 도시경관의 고려를 공익으로 규정
- 연례 신진건축가 공공주택 설계경기('71년)
- 모든 공공건축물 설계경기로 건설('77년)
  - ·건축박물관, 도시설계전시관, 건축문화센터 건립

독일의 건축문화운동

- 연방정부의 건축문화운동(Architecture and Building Culture Initiative) 추진('00년)
- 지속가능한 건축문화를 연구하는 관·산·연 중심의 건축문화원탁회의 추진('01년)
  - ·정치, 산업, 과학, 행정 분야의 대표자들 간의 토론을 통해 건축문화 프로그램 개발

스웨덴의 미적 권리

- 건축과 도로·교량·철도 등을 통합한 지역의 '아름다울 권리' 구축이 정책 목표
- '건축의 해'('98년)를 조직, 건축전시회 개최
- '스웨덴 건축박물관' 건립('01년)

□ 공공 선도프로젝트 및 건축문화축제

스페인 빌바오시티

- 걸작건축물 '구겐하임미술관'을 유치('97년), 쇠락한 공업도시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변신
  - · 미술관건립에 1,500억원 투자, 개관이후 6년간 약 1조5천억원의 경제적 효과
  - · 연간 관광객 약 100만명

프랑스 미테랑 프로젝트

- 혁명 200주년 기념과 문화강국이미지 강화를 위해 10대 대형 건축프로젝트 추진('89년)
  - · 신개선문(정부청사), 오르세미술관, 바스티유 오페라좌, 신루브르박물관, 라빌레뜨 공원 등
- 구도심의 슬럼화 방지, 역사적 고전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을 통한 건축도시문화 부흥 성공

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

- 후손에게 볼만한 건축을 테마로 '88년부터 아트폴리스 프로젝트 시작
  - · '92년부터 국제건축전 시행 (총 4회)
  - · '88년 착수 이후, 우시부카 하이야 대교('97년), 세이와 분라쿠관 등 74개 건축 프로젝트 완성
- 디자인커미셔너가 설계자 추천, 공공기관과 설계자간의 중재와 협의과정 등 주도

이탈리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

- 올해 제10회째인 세계 최대의 '건축 및 도시 전시회'로 우리나라는 '96년부터 참가
- 중앙과 지자체가 50%씩 행사 비용 분담 (국가별 전시관은 당사국에서 부담)
- '청계천 복원 프로젝트'가 공식 초청('04년)

□ 건설기술 혁신

○ 미국은 건설부문을 첨단기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**「국가건설목표**(National Construction Goal)**」 설정 추진**

- '93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'국가과학기술위원회'를 구성하고, **국가차원의 전략을 부처 공동으로 수립·시행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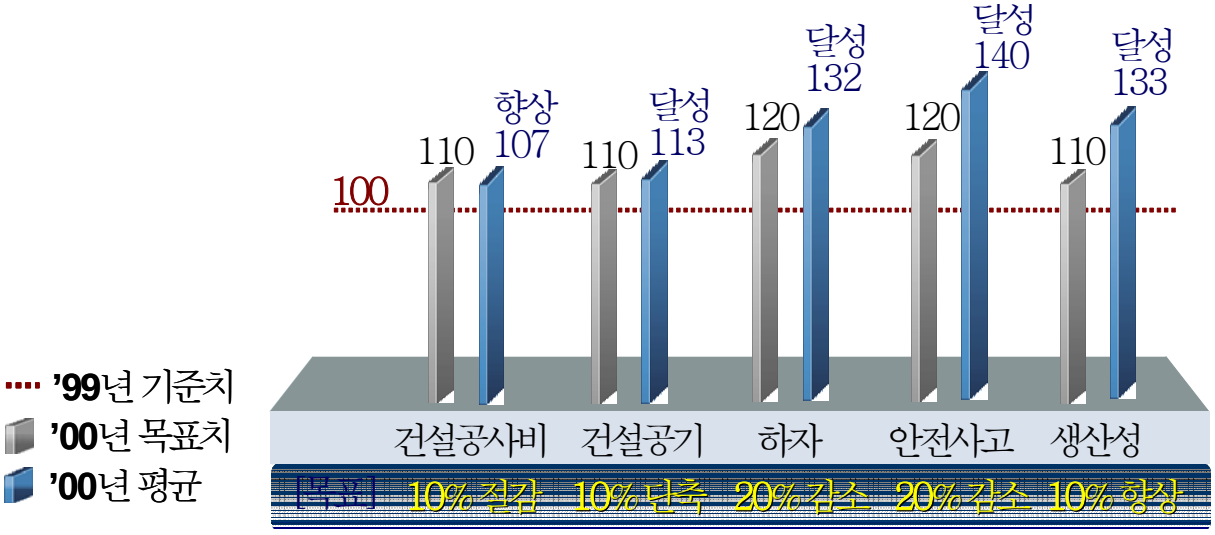
- 건설의 위상을 정보기술(IT)과 생명공학(BT)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**R&D강화 및 민관협력을 강조**

※ 사업기간 50% 감축, 공해와 폐기물 50% 저감, 생산성 30% 향상, 내구성 50% 향상 등 7개 목표를 설정하고 R&D분야에 70억불 투자

※ GDP대비 7.4→8.3%의 생산증가, 500→690만명의 고용증대 등 성과('92~'01년)

○ 영국은 '98년부터 산학연이 공동으로 **「건설재인식운동**(Rethinking Construction)**」 추진**

- 7대 목표와 15대 Best practice 분야를 설정하고, **공공 발주자 대상의 '혁신프로그램' 병행**



※ 시사점 :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으로 혁신정책의 효과 극대화 필요

2. 우리의 혁신 노력

□ 건축문화운동

담장허물기(대구)

- 시민운동가 발의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
- 지자체에서 예산 등 적극지원
- 342개 건물의 담장(16.6km)을 철거하고 78,000평의 가로공원 조성

헤이리 예술마을(파주)

-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개발된 문화예술마을
- 15만평 부지에 건축가, 영화인 등 370여 예술인이 참여
- 집과 작업실, 미술관, 갤러리 등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
- 디자인코디네이터 지정 운영

화장실개선운동(수원)

- 2002년 월드컵 개최와 연계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'화장실개선운동' 추진
- 공중화장실을 문화공간으로 만든 대표적 성공사례로 범사회적으로 확산

공공건축물디자인개선(무주)

- 국내 저명건축가를 총괄계획가(MA)로 지명 지역의 공공건축물 설계와 리모델링 추진
-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와 인간이 조화로운 생태문화도시 추구
  - · 면사무소에 목욕탕, 공부방, 공연장 등 생활 편의시설 설치

※ 경직적 규정으로 설계비 지원 등 애로
(수의계약은 1건당 3,000만원 이하만 가능)

□ 정책혁신(공공부문)

○ **'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' 추진**('99.7, 건교부)

- 건설사업 절차, 용지 선보상, 설계VE 제도 도입 등 성과

○ **'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'** 추진('05.11, 규개위)

- 입낙찰제도 개선, 보증, 하도급제도 개선 등 추진중

○ **'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'** 추진('06.3, 건교부)

- 상생협의체 시범운영, 파트너링(주계약형 공동도급) 활성화, 하도급공사 정보망 구축

○ **'건설교통R&D 혁신로드맵'** 수립('06.6, 건교부)

- 10대 프로젝트(VC-10) 선정, 향후 10년간 중장기 계획 수립

□ 정책혁신(학계, 산업계)

○ 민간 전문가 주도로 '건설산업 비전포럼', '건축문화 포럼', '한국건설문화원' 등을 구성하여 **오피니언 리더 역할 수행**

- 건설·건축문화에 대한 참여의식 확산과 **글로벌스탠더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의 성과**

※ 시사점

- 건축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감안 체계적인 지원 필요

- 건설제도 개선은 이해갈등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나, 관련기관 협력 등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한 조정력 필요

Ⅳ. 정책방향

1. 기본방향

□ 제도 개선과 모니터링 및 성과확산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발족 후 10년이 경과한 **2015년을 최종 목표년도로 설정**

○ 법령 및 하위규정 정비에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 2007년을 '단기', 2008년을 '중기' 목표년도로 설정

□ **현장의 업무 Process를 면밀히 검토**하고,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**핵심과제 선정**

○ 기존도시, 신도시, 농촌마을 등에서 **디자인 전문가가 경관 및 품격을 체계적으로 관리**하는 시스템 마련에 중점

○ **기술력, 디자인능력 중심의 공정한 경쟁체계**를 마련하여, 국내의 활동이 국제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는 체제 구축

○ 법령·제도 정비만 아니라 공공 선도사업, 건축문화이벤트 등 **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혁신성과의 효율성** 도모

□ **'현장실천운동'을 병행**함으로써 혁신성과의 빠른 확산과 적용과정에서 발견되는 개선사항의 피드백

□ 건설생산체계는 글로벌스탠더드를 지향하되, 시공 중심으로 **고착된 건설산업구조를 감안하여 충분한 갈등조정 선행**

※ 선진화연대 중심의 '현장협의회'와 관련부처간 '정책협의회' 운영

□ **신규 예산의 투입보다, 기존 사업에 혁신성과를 적용**하여 고품격, 저비용의 건축물 및 시설물 확보 등 도모

2. 비전 및 목표 [2015년]

□ 비전(Vision) : 쉬운 표현으로 설정하여 슬로건化

좋은 환경 좋은 건축 21

◀건설산업을 3D에서 3C로 전환▶

- ► Creative : 고품격, 창의성, 문화 컨텐츠화
- ► Competitive : 기술력 위주, 민간 활력, 전문가 주도
- ► Credible : 투명성, 공정성, 안전성, 삶의 질

□ 목표(Goal) : 비전 달성을 위한 지향점 및 성취기준 설정

○ 목표 1 : 도시/건축 속의 인간 삶의 질 향상

- 세계를 선도하는 건축문화강국 진입
- 전통문화와 융합하는 지역 고유성 계승 발전

○ 목표 2 : 건설생산성 향상

- 사업기간 50% 감축, 공사비 30%, CO_2 발생 30% 절감
- 미래의 지식기반 사회 선도

○ 목표 3 : 세계 5위 해외시장 점유율 달성

- 세계일류 건설브랜드 5개 확보
- 건설업 역량 강화 및 건설산업구조 고도화

3. 12대 핵심과제 및 3+3 현장실천운동(ACCT-1233)

□ 전략 및 12대 핵심과제

○ 전략 1 : 건축문화 혁신기반 조성

- 과제 1 : 창의·예술성 제고를 위한 건축/경관 제도 정비
- 과제 2 : 전문가에 의한 도시경관 관리
- 과제 3 : 건축문화 지원네트워크 구축

○ 전략 2 : 공공선도 프로젝트 시행

- 과제 4 : 건축문화 이벤트 개최
- 과제 5 : 좋은 건축물 프로젝트 기획
- 과제 6 :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시 공간환경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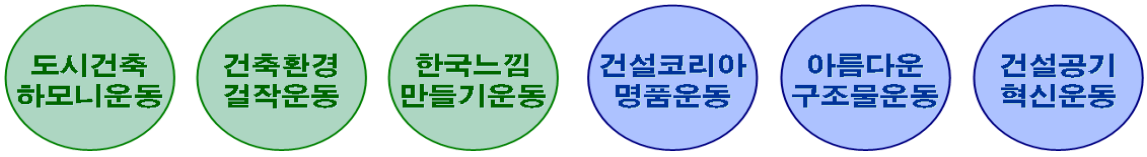
○ 전략 3 :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

- 과제 7 : 세계일류 건설브랜드 확보를 위한 R&D 프로젝트
- 과제 8 : 신기술 개발 활용 촉진
- 과제 9 : R&D 투자·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화

○ 전략 4 : 글로벌스탠더드 생산체계

- 과제 10 : 기술경쟁 중심으로 건설생산체계 개선
- 과제 11 : 건설기준의 국제화 및 설계 품질 제고
- 과제 12 :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네트워크 구축

□ 3+3 현장실천운동



<건축문화 분야> <건설기술 분야>

Ⅴ. 부문별 추진방안 : ACCT-1233

Ⅴ-1. 12대 핵심과제

1. 창의·예술성 제고를 위한 건축/경관제도 정비

□ 추진배경

○ 현행 **건축관련 법령의 일관성 부재, 창의력 제한의 문제**를 해결하고,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

○ 시대적 상황과 국제적 흐름에 따라 **도시와 건축 관련 법령, 기준의 체계적인 정비** 필요

○ 건축, 도시, 조경 등 디자인 전문가가 창의력과 예술성을 최대 발휘하고, **3차원 공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**

□ 개선방향

○ 건축 관련 80여개 법령 조정과 건축도시문화 진흥을 위하여 **'건축기본법'을 제정하고, 관련법령체계 일제 재정비**

- 건축 관련 법령의 규제사항들에 대한 조정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**관련부처 및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운영**

○ 여러 부처에 산재한 경관제도들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**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「경관법」 제정**

- 색채, 공간디자인 등 3차원적으로 도시전체의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**'경관기본계획' 제도화**

- 주민이 지역경관개선에 참여하고 지자체와 주민의 협력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**'경관협정제' 도입**

※ 국토전반의 계획적 경관관리를 위해 지역내의 자연경관, 역사문화경관, 도시경관 등을 대상

○ 건축가의 창의력 극대화를 위한 **「특별건축구역」제도 도입**

- 금년도 건축법 개정을 완료하여, 행복도시, 혁신도시 등에 시범적용을 목표로 추진

※ 특별건축구역(안) : 특정지역에 대해 높이, 사선, 건폐율 제한 등 해제 (용적률, 용도지역 등 최소기준만 준수, 건축심의로 조정)

※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('06.6) : '즉시도입(5.5%)', '시범적용 후 도입(73.8%)' 등 '찬성의견(79.3%)' 절대 다수

□ 추진일정(안)

세부추진과제	추진일정							
	'06	'07 상반기	'07 하반기	'08 상반기	'08 하반기	'09	…	'15
▪ 건축기본법 제정 및 관련법령 정비	법제정 추진			확산				
	관련법령 정비							
▪ 경관법 제정	법제정	시범적용		확산				
▪ 특별건축구역제도 도입	법령개정	시범적용		법령보완		확산		

2. 전문가에 의한 도시경관 관리

□ 추진배경

○ 신도시 건설, 기존도시 재정비과정에서 계획·설계·시공 등 일련의 과정을 **디자인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**

※ 현재 비공식 자문형태로 운영되는 총괄계획가(MA/MP)와 디자인 커미셔너(DC) 방식의 **법적근거 마련 필요**

※ MA/MP : 건축, 도시설계, 조경 등 전문가가 설계 등 사업 관리
DC : 도시계획 및 관리업무 전체 총괄(MA/MP 업무지휘 등)

○ **SOC시설, 가로시설**(육교, 정류장 등), **조경**(공원) 등은 경관에 중요하나 경제성만 강조되고, **예술적·미적 가치 소홀**

□ 개선방향

○ 건축·도시 전문가가 도시개발을 관리하는 **총괄계획가**(MA/MP), **디자인커미셔너**(DC) **방식 제도화**

- 행복도시, 도시재정비, 농어촌 전원마을 조성 등에 활용

※ 총괄계획가 등의 권한과 책임, 업무범위 등을 명시하는 운영지침 제정

○ **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하여** 상징건축물, 기념건축물 등은 설계경기를 적용토록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

- **우수건축가 '지명 설계경기', 수상건축가 '지명설계'**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설계경기 활성화

- 차세대 우수건축가 육성을 위한 **신진건축가 대상, 여성건축가 대상 설계경기 방식**도 도입

- 설계경기 심사과정의 공개와 **심사기준·절차의 국제수준화**

○ SOC시설, 가로시설(육교, 정류장, 펜스 등), 도시설계 및 조경 등에 **디자인 경쟁, 설계경기 활성화** 추진

- 건설기술관리법 기술공모방식으로 디자인경쟁이 가능하나, 발주기관 관심 미흡 등으로 **활용실적이 극히 미미**

- 예술성, 창의성이 필요한 경우 **적극 활용토록 권고하고, 본격적인 설계경기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** 병행

○ SOC 등 공공건설에서 미적가치가 고려되도록 **설계심의 기준을 개선**하고, 전문가가 심의과정에 참여토록 규정

※ 설계 및 턴키공사 심의시 예술성, 품격 관련 배점 확대 등

□ 추진일정(안)

세부추진과제	추진일정							
	'06	'07 상반기	'07 하반기	'08 상반기	'08 하반기	'09	…	'15
▪ MA/MP제도, DC방식 제도화	방안마련	법령개정		확산				
		시범운영						
▪ 건축물 설계경기 개선	제도개선		확산					
	시범운영							
▪ SOC시설 등 디자인경쟁 활성화	방안마련	법령개정		확산				
		시범운영						
▪ SOC시설 등 설계심의 개선	방안마련	제도개선		확산				
		시범운영						

3. 건축문화 지원네트워크 구축

□ 추진배경

○ 건축·도시분야의 **고질적인 민원불만을 해소**하고, 주민 자발적인 **마을 가꾸기 사업** 등에 대한 **체계적인 지원** 필요

※ 건축·도시 민원은 전체의 18.2%이나, 담당공무원은 4.7% 수준

○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이 도시미관 관련 환경개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, **상호 연계성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**

○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감안하여, **수준 높은 지식과 정보 제공** 필요

□ 개선방안

○ 건축·도시분야 정책 및 제도 연구, 한국형 설계기법 개발, 설계경기 기술지원 등을 담당할 **「건축도시연구원」 설립**

-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, 도시관련 학·협회 등 **민간 출연으로 우선 설립하고, 법정기관화 병행** 검토

※ '06.3월 민간단체 주도로 설립추진위를 구성 활동 중

○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마을가꾸기 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가(건축사, 기술사 등)가 참여하는 **「건축도시주민지원센터」 운영**

- 지역에 적합한 명칭(건축도시사랑방, 마을가꾸기센터 등)과 운영방안을 마련하여, **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**

※ 서울 강남구, 양양군 등 7개 지자체 시범운영 추진 중('07. 3 개설)

○ 우수 건축문화에 대한 기술정보센터, 전시관, 교육 및 체험관 기능을 담당하는 **「건축도시문화관」 건립**

- 농촌지역 건축 및 주거문화 향상 등을 위하여 **「전원마을 체험·전시관**(자재전시관, 정보센터 등)**」을 별도 건립**

- **「Cyber-건축도시문화관」 설치를 병행 추진**하고, '건축도시주민지원센터'와 연계 운영

○ 기존의 박물관, 미술관 등과 차별화된 문화활동 중심형 **건축도시문화관을 행복도시에 건립**

※ 행복도시에 '건축도시문화관', 농촌공사에 '전원주택체험전시관' 건립 추진을 위하여 사업내용,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 중

건축문화 지원네트워크의 3가지 축

전원주택체험전시관 구상(안)

□ 추진일정(안)

세부추진과제	추진일정							
	'06	'07 상반기	'07 하반기	'08 상반기	'08 하반기	'09	…	'15
▪ 건축도시주민지원센터	방안수립	시범운영		확산				
▪ 건축도시연구원 설립	추진위구성	연구원 설립		운영				
▪ 건축도시문화관 건립	기획	전원마을체험전시관 (농촌공사)		건축도시문화관 (행복도시)				

4. 건축문화이벤트 개최

□ 추진배경

○ 국민들에게 **우수 건축문화 체험기회를 제공**하고, 건설 참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**'건축문화 이벤트' 필요**

※ 올해 10회인 '베니스비엔날레' 건축전은 세계적 축제로 자리매김

○ 지자체, 관리주체,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**환경을 가꾸고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의 매개체 필요**

□ 개선방안

○ 위원회에서 매년 **'올해 건축의 도시'를 선정하고**, 해당 지자체에서 **국제적**인 **건축문화축제**를 **개최**

- **해당 도시의 공간개선을 주제**로 하천복원 콘테스트, 청사 리모델링 설계경기, 가로시설 디자인공모전 등 시행

- 건축도시 관련 단체의 각종 **국내외 행사**(심포지엄, 학회, 문화행사 등)**를 유치하여 시너지 효과** 도모

- 고유의 특성을 갖는 독특한 **건축문화축제로 육성하고,** 베니스비엔날레와 같은 **세계적 건축전으로 발전 도모**

※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개최지역을 변경하며, 금년 7월 후보도시를 선정하고, **11월중 제1회 축제 개최 추진**

<올해 건축의 도시 축제 프로그램>

○ 위원회에서 우리 건축문화 수준을 높인 건축·시설물에 대하여 매월 1개소의 **'이달의 건축환경문화'를 선정**

- 작품성, 창의성, 공공성, 조성·관리체계의 우수성,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작 선정

※ 선정작 : 선유도공원(5월), 전주한옥마을(6월), 웰콤시티(7월예정)

<선유도 공원>

<전주 한옥마을>

<웰콤시티(광고회사)>

- 위원회 홈페이지에 '이달의 건축환경문화' 코너를 운영하고,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집 등으로 대국민 홍보

※ '이달의 건축환경문화' 탐방 프로그램 추진 검토

□ 추진일정(안)

세부추진과제	추진일정							
	'06	'07 상반기	'07 하반기	'08 상반기	'08 하반기	'09	…	'15
▪ 올해 건축의 도시	매년 선정 (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시행)							
▪ 이달의 건축환경문화	매달 선정							

5. 좋은 건축물 프로젝트 기획

□ 추진배경

○ **국가를 대표할 만한 건축물**(랜드마크)**이 거의 없으며,** 일부 우수 건축물도 민간에 의해 건립

※ 코엑스(삼성동), 63빌딩(여의도), 교보빌딩(광화문, 강남) 등 민간의 초고층건축물이 랜드마크 역할 부분 수행

○ 건축, 도시계획에서 **주변과의 조화, 한국 고유의 멋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** 지역의 대표적 건축물이 부족

□ 개선방안

○ 행복도시, 경제자유구역, 용산민족역사공원 등 **국가적 사업지구에는 전문역량을 집중**

- 위원회와 사업자간 협의체(또는 지원기구)를 구성하여 **기획, 설계, 건설 프로세스 고도화**로 세계적 건축물 확보

- 독창적, 예술적 작품의 탄생을 위하여 **총괄계획가, 설계경기, 우수건축가 지명설계 등 다양한 방법** 복합 적용

※ 공원, 박물관, 문화센터, 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 중점 검토

○ 지역별 고유의 건축문화 창조와 확산을 위하여, 지역특성에 적합한 **'지역 명소화 사업'에 대한 체계적 지원**

- 부산, 광양 등 주요 항만의 **랜드마크 건축물, 워터프론트** (항만 배후지에 친수, 관광, 상업시설) 시설 조성

- 지방도시의 **문화탐방로, 테마가로 조성, 역사환경 복원** 등

- 건축문화, 지역개발 지원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, **사업 정보 공유, 평가, 예산의 체계적 연계 지원** 등 추진

<버즈알아랍, 두바이>

<신개선문, 파리>

<푸트라모스크, 푸트라자야>

□ 추진일정(안)

세부추진과제	추진일정							
	'06	'07 상반기	'07 하반기	'08 상반기	'08 하반기	'09	…	'15
▪ 국가의 대표 건축물 확보	기획	협의체운영		사업추진				
▪ 지역 명소화 사업 지원	협의체 구성	지역 명소화		시범적용		확산		

6.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시 공간환경 조성

□ 추진배경

○ 기존 신도시는 공공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의 입지 결정후 개별적으로 건설되어 **시설간 연계성이 부족**

- 지역 공동체 활성화, 주민편의 향상,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 **시설의 새로운 배치 및 계획방식 필요**

○ 현행 주거환경개선사업(현지개량, 공동주택)은 원주민 이주 대책이 미흡하고 **재정착율이 낮아 지역공동체 훼손**

※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원주민 재정착율은 58% 수준

□ 개선방안

○ 주민의 생활편의 도모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심 역할 수행을 위한 **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**

- 시범사업 시행결과를 모니터링하고, **지역별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여 신도시,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확대** 적용

※ 복합커뮤니티센터 : 학교, 공공청사, 파출소 등 공공시설과 공원, 체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을 동일지역에 체계적으로 복합계획

※ 남양주 별내지구(설계중), 행복도시 첫마을(설계공모중), 파주 운정지구 등

<남양주 별내지구 복합커뮤니티 계획(안)>

○ 원주민 재정착형 시가지 정비, 실버케어센터 및 보육시설 네트워크 등 **지속가능한 도시재정비 모델 개발**

- 지자체와 협의하여 **금년 중 3개소 내외의 시범사업지구 선정**

※ 원주민의 경제능력, 가구형태 등을 고려 주민재정착모델 적용

※ 주거환경정비 2단계사업('06~'10) : 451구역(14만 가구), 2조원

복합개발방식 (공동주택+현지개량)

복합개발사례(일본, 네야가야)

□ 추진일정(안)

세부추진과제	추진일정							
	'06	'07 상반기	'07 하반기	'08 상반기	'08 하반기	'09	…	'15
▪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	기획	시범사업						
	연구수행							
▪ 도시재정비 모델 개발	시범사업	계획수립	정비사업					
	선정							

7. 세계일류 건설브랜드 확보를 위한 R&D 프로젝트 추진

□ 추진배경

○ **미래 건설산업은 다분야 융합기술이 요구**되나, 부처별로 분산 시행되어 현장의 요구에 맞지 않거나, 활용도 저하

○ 최근 건교부는 '**건설교통R&D 혁신로드맵**('06.6)'**을 수립**,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10대 프로젝트(VC-10) 제시

-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『Global Top 5』기술과 안전하고 쾌적하며 고도화된 **친환경 도시공간 창출기술 개발**

※ 초고층 복합빌딩시스템, U-Eco City, 초장대 교량, 입체형 도심 재생 시스템, 해수 담수화 플랜트 등 기술개발 추진

○ 미래 신시장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**공기혁신**과 함께 **친환경, 자연에너지 이용기술 확보** 필요

□ 개선방안

○ 첨단융합기술의 총화로서 세계일류 건설브랜드 확보를 위해 **공기혁신·초고층 복합건축 프로젝트 시행**

○ 미래 기술수요 대응 및 환경부하 저감기술 선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**U-Eco City 프로젝트**

- **자연에너지 이용기술과 에너지 소비 저감기술**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확보 추진

※ 행복도시, 혁신도시, 경제자유구역 등에 시범사업 모델 실현

○ 친환경·웰빙·고기능 건설부품 및 자재, 유비쿼터스 활용 분야에 대하여 **'범부처 R&D 메가 프로젝트' 추진**

- **범부처 차원의 R&D 연구기획 전문가 그룹**(과기, 농림, 해수, 환경, 산자, 건설)을 구성하여 연구기획 추진

○ R&D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**최적 시범공간**(Test-Bed) **확보**를 위해 위원회의 지원 추진

※ 지방자치단체, 혁신도시 등 시범적용 가능 공간 파악

□ 추진일정(안)

세부추진과제	추진일정							
	'06	'07 상반기	'07 하반기	'08 상반기	'08 하반기	'09	…	'15
▪ 공기혁신·초고층 복합건축 프로젝트	기획	기초연구		시범적용		확산		
▪ U-Eco City 건설 (자연에너지 이용 등)	기획	기초연구		시범적용		확산		

8. 신기술 개발 활용 촉진

□ 추진배경

○ 민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'건설신기술'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**신청 및 지정건수 줄어드는 추세**

연 도	'89~'99	'00	'01	'02	'03	'04	'05	합 계
신청건수	587	124	114	114	58	61	43	1,101
지정건수	216	48	59	37	44	39	37	480

○ 건설 신기술, 신소재, 고기능 자재가 개발되어도 **신뢰성,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여 사용을 기피**

- 이에 따라, 우수 기술이 사장될 뿐 아니라 **민간의 연구개발 의지를 저해**

※ 건설신기술중 1회 이상 적용은 68%, 6회 이상 적용 39% 수준

□ 개선방안

○ 신기술, 신소재 등의 실용화 확산을 위하여 Test-Bed 제공, 시험비용 국고지원 등 **건설 혁신기술 활용 지원 강화**

- 연구기관의 인력, 시설 등을 활용하여 **현장 및 Pilot-Plant 시험** 등을 통하여 필요한 성능 검증

※ 환경부는 현장검증을 통해 검증서를 발급하는 '환경기술검증제' 운영 중

○ 사용자(발주자)의 신기술 적용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**'성능보험제도' 도입** 검토

- 성능보험에 가입된 신기술에 대한 입찰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제도 도입 검토

※ 성능인증 신기술 적용 후, 성능 불완전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 보증

※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법을 개정,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

□ 추진일정(안)

세부추진과제	추진일정							
	'06	'07 상반기	'07 하반기	'08 상반기	'08 하반기	'09	…	'15
▪ 신기술 활용지원 강화	기획(안) 마련		시범운영		확산			
▪ 건설신기술 성능보험제도	기획(안) 마련		제도 도입		시행			

9. R&D 투자·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화

□ 추진배경

○ 최근 건설교통 R&D가 확충되고 있으나, 예산대비 1.5% 수준('06년 2,620억원)으로 **정부 R&D 평균 4.4%에 크게 미달**

※ R&D예산 : 730억원('03년), 753억원('04년), 1,519억원('05년), 2,620억원('06년)

○ 건설교통 R&D 예산 확대와 연계하여 **연구인력, 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나 미흡**한 실정이며 수도권에 편중

※ '03년~'06년간 R&D예산은 3.6배로 증액되었으나 연구인력은 1.2배 증가(8,367→10,174인), 향후 인력부족 심화 전망

※ 예산의 확보 문제 등으로 연구시설 확충이 미진하며, 수도권에 연구시설의 75%가 분포하는 등 지역불균형이 심함

□ 개선방안

○ 건설교통 R&D투자를 '07년 예산대비 **3%인 5,100억원 수준으로 확충**하고, '10년 4.7% 수준인 8,000억원으로 확대

○ **연구인력, 시설 등 인프라 확충방안**을 마련하고 '건설교통 R&D 혁신로드맵'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

※ '10년까지 15,000명, '15년까지 20,000명 이상 연구인력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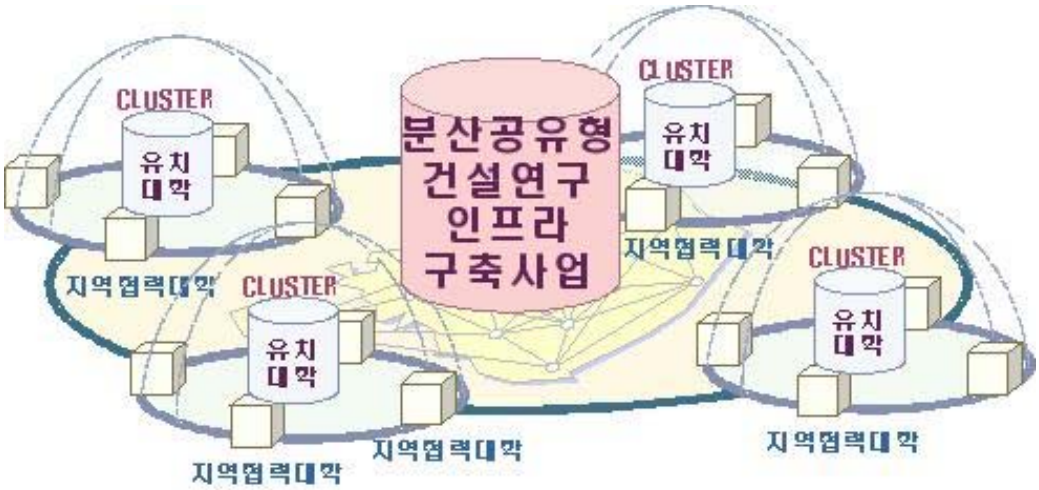
※ 하천실험센터, 도로주행시험장 등 실용화 실험시설 등 확충

○ 지역 연구시설 확충 및 네트워크화 하기 위해 추진 중인 **'분산공유형 건설연구인프라사업'을 차질 없이 추진**('04~'13년)

- 연구 인프라 활용 증진을 위하여 DB 구축 운영

□ 추진일정

세부추진과제	추진일정							
	'06	'07 상반기	'07 하반기	'08 상반기	'08 하반기	'09	…	'15
▪ R&D 투자 지속적 확대	계획수립	연차별 확대						
▪ R&D 인프라 확충	계획수립	연차별 확대						
▪ R&D 인프라 네트워크화	연구DB구축		연차별 추진					



<연구 인프라 지역 네트워크 사업>

10. 기술경쟁 중심으로 건설생산체계 개선

□ 추진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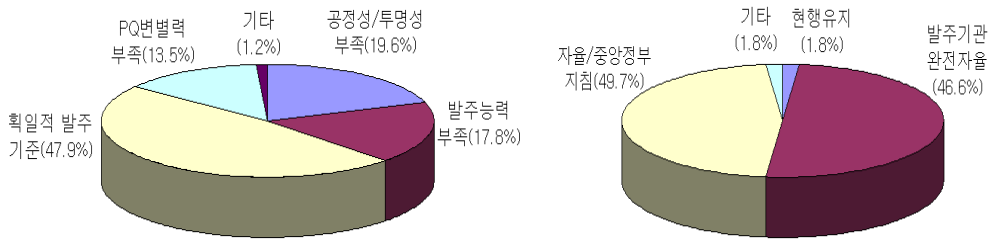
○ 현행 입낙찰제도는 기술력,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**투명성, 공정성 위주로 운영되어 운찰제**(運札制)**로 변질**

※ '적격심사'는 추첨으로 결정되는 예정가격이 낙찰의 주요 요인이며, '최저가'의 저가심사는 평균입찰가격이 중요하여 運札制 성격

○ 획일적인 중앙조달방식 발주제도 강제적용은 **사업특성, 발주기관의 자율성 저해**

※ 공공발주현황 : 최저가낙찰(10.7%, **300억원 이상**), 적격심사(50.9%, **300억원 미만**), 턴키·대안입찰(38.4%, 심의로 결정)

발주 및 입낙찰제도 개선 의견 (전문가설문, '06. 6)



<제도 및 정책 문제점> <발주기관 자율성 부여>

○ 단가기입식 응찰방식은 보다 나은 신기술, 신공법, 자재 등 대안제시에 의한 **기술경쟁이 곤란하고 비용 상승** 등 문제점

※ 턴키·대안입찰로 추진되는 사업에 한하여 기술대안 제시 가능

○ 기획, 설계, 시공, 관리의 연계성 확보와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**CM방식이 제도적 제한으로 활성화 미흡**

※ 규개위, 재경부 등에서 입낙찰제도 개선(저가심의, 최고가치낙착제 도입 등), 하도급 관리 투명화 등

□ 개선방안

○ 가격과 품질을 함께 고려하여 **'최고가치방식'** 등 글로벌 **스탠더드의 다양한 발주 및 입낙찰제도** 도입

※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발주 및 입낙찰제도(사례)

구 분	주요내용	대상공사
최고가치낙찰제	· 종합점수제, 가치평가후 최저가 등	· 고품질, 고품격 요구
2단계 경쟁입찰	· 기술제안서 평가 후 최저가 적용	· 전문성, 기술성 요구
협상에 의한 계약	· 제안서 평가후 협상으로 선정	· 사업범위 사전확정 곤란
성능보장형 계약	· 시험으로 성능만 판단(총액계약)	· 성능 확인필요(설비)
공기단축형 계약	· 공기 · 공사비 고려(사용자 편익 감안)	· 긴급(수해복구 등)
CM for fee	· CM이 발주자 역할 일부 대행, 조언	· 발주자 능력 보완
CM at risk	· CM이 권한과 Risk 담당	· 민간전문성 고도 활용

○ **발주기관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확대**하고 조달기관의 협업 · 분업을 강화하고, **발주매뉴얼 제정**

○ 기술대안 활성화를 위해 **'순수내역입찰제'** 도입

○ 발주자 역할 대행 근거조항 마련 등 **CM 활성화 추진**

※ 규개위, 재경부 등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력

□ 추진일정(안)

세부추진과제	추진일정							
	'06	'07 상반기	'07 상반기	'08 상반기	'08 하반기	'09	…	'15
▪ 다양한 발주제도 도입	제도개선 (시범도입)	시범적용 (모니터링)		제도개선 (본격도입)		확산		
▪ 발주기관 재량권 확대	제도개선 (시범도입)	시범적용 (모니터링)		제도개선 (본격도입)		확산		
▪ 순수내역입찰제 도입	제도개선 (시범도입)	시범적용 (모니터링)		제도개선 (본격도입)		확산		
▪ CM방식 활성화	방안마련	제도개선		확산				

※ 글로벌스탠더드 시범적용이 가능한 규정을 만들어 행복도시 등에 적용하고, 모니터링 후 본격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등 단계적 추진

11. 건설기준의 국제화 및 설계품질 제고

□ 추진배경

○ 우리의 설계·시공기준은 형태, 치수 등 사양을 제시하며, 요구기능, 품질을 규정하는 **'국제적인 성능기준'과 상이**

- 신기술·신공법의 적기 적용이 어렵고, 외국의 설계기준에 적응이 어려워 **해외시장 진출에 장애**

○ 설계비용은 **추정 공사비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'공사비 요율방식'**으로 산정

- 복합공정의 경우, 최적설계를 위한 정밀검토가 생략되어 **과다·과소 설계로 인한 비용증가, 기능저하** 등 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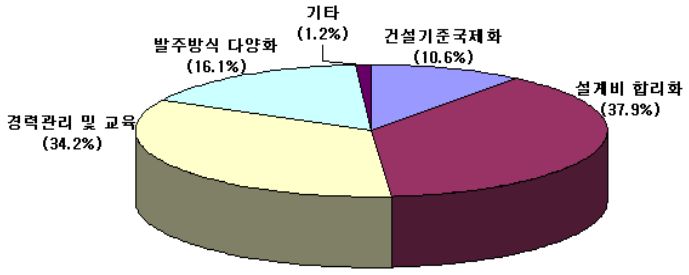
- 또한, 최적설계로 공사비 절감시 설계비를 환수당하는 문제가 있어 **과잉설계를 조장하고, 설계VE 활동 저해**

※ 미국, 일본 등에서는 설계 소요시간, 임금 등을 고려하여 **'실소요 비용'을 산정**하고, '공사비요율방식'은 적용하지 않음

○ 건축사에 대한 공인된 경력관리제도 없으며, 건축·건설 기술자에 대한 **체계적 교육시스템 부재**

※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'95년부터 경력관리제 운영 중

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관련 중요도 (전문가설문, '06. 6)



□ 개선방안

○ 기술력 증진, 비용절감을 위하여 건설기준(설계기준 19종, 공사기준 26종)을 **국제적 성능기준으로 전면 개선**

※ 성능기준 적용시, 단기 7.5%, 장기 25%의 비용절감 효과 예상

※ 유럽은 '80년대초 Eurocode를 제정하여 국제적 위상 확보(50여개국 표준 채택), 미국은 '00년 ICC Code 제정하였고 일본도 '01년부터 성능기준화 추진

○ 건설·건축물의 설계비의 실제 소요비용을 반영하는 **국제기준의 '실비정액가산방식'을 도입 및 설계VE 활성화**

- **외국의 적용사례 연구, 설계업무 프로세스 분석**을 통하여 '세부적용기준' 제정 필요

- Cost 절감, 고품질 설계를 위하여 및 **설계비 산정방식의 합리화 추진**

○ 건축사 경력 관리를 위한 **'건축사등록원'을 설립**하고, 학·협회 등과 협력하여 신기술 등에 대한 **'평생교육체계' 마련**

□ 추진일정(안)

세부추진과제	추진일정							
	'06	'07 상반기	'07 하반기	'08 상반기	'08 하반기	'09	…	'15
▪ 건설기준의 성능기준	성능기준화 기본계획			기준별 개정작업 추진				
▪ 설계비 산정방식 합리화	방안마련	제도개선 /시범적용		확산				
▪ '건축사등록원' 설립	방안마련	등록원 설립		운영				
▪ '평생교육체계' 구축, 운영	방안마련	시범운영		확산				

12.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

□ 추진배경

○ 국내 건설업체는 국내시장 축소로 인한 위기감으로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**능력이 부족한 상황**

※ 건설CEO설문 : 최고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해외시장개척을 지적(27.3%)

○ 고부가가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는 **기획, 엔지니어링, 시공 등 국내의 역량을 결집**할 필요가 있으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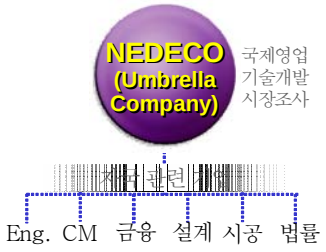
- 해외 건설정보 및 전문인력에 관한 **체계적인 정보공유와 관련 업체간 협력시스템 미흡**

※ 전문가설문(해외경쟁력 역량) : '기획, 엔지니어링 등 통합관리 능력'(73.3%), '인력확보 및 관리'(15.5%), '클레임관리 등'(11.2%)

□ 개선방안

○ 국내업체간 협력, 관련협회의 지원 등 **컨소시엄방식을 통한 해외시장 공동 진출** 촉진

※ 네델란드 NEDECO社와 같이 프로젝트별로 적합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또는 별도 법인 운영



○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해외건설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**'인력정보 DB'를 확대**하고, 해외건설 전문교육 강화

※ 해외건설협회를 통하여 '06.4월부터 해외건설 유경험자 등록 중

○ 중동, 아시아에 편향되며 플랜트 위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**민관협력에 의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**

- 금융능력 제고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**해외건설펀드**(Private Equity Fund) **설립**

- 건설협력 MOU체결 확대(23개국 기체결, '06.3월 현재), 해외건설주재관 재배치 등 **건설외교 강화**

○ 민관협력으로 건설, 건축 관련 국제행사(Forum, Expo 등) 유치를 확대하는 등 **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**

※ 선진화위, 선진화연대, 부처, 학·협회, KOTRA, 공기업 등 협력

□ 추진일정(안)

세부추진과제	추진일정							
	'06	'07 상반기	'07 하반기	'08 상반기	'08 하반기	'09	…	'15
▪ 컨소시엄방식 해외진출 추진	방안마련	시범적용		확산				
▪ 해외전문가 DB 구축	DB구축		운영					
▪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	펀드설립		지원					

Ⅳ-2. 3 + 3 현장실천운동

□ 목 적

○ 일반인·전문가·업체 등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**건설기술·건축문화의 근본혁신을 도모**

○ 현장중심실천을 통한 Best-Practice 확산 및 제도화 촉진

□ 운동방식

○ 선진화연대의 협회, 공기업,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, 협력적 **현장실천 운동 전개** (중앙부처, 지자체 지원)

○ 공모/추천을 통하여 Best-Practice 사업을 지정

□ 구 성

건축문화 혁신운동

1. 도시건축 하모니운동

□ 필요성

○ 개별적인 건축·시설물 단위의 우수 디자인과는 별도로 **주변 환경과의 조화나 건물간의 조화 확보 필요**

□ 혁신 프로그램

○ 우수건축물 시상시 '도시건축하모니 부문 특별상' 시상

○ 모델프로젝트 지정 및 지원

- 농어촌마을 업그레이드
- 간판정비, 가로시설물 개선 및 주민협정제 추진
- 공사현장관리와 울타리 미관개선 운동 전개

○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한 **제도적 기반 조성**

- 대형 건축물/시설물 설계심의시 주변지역과 조화여부 검토

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(파리)

연접형 건축물(암스테르담)

광장 경관(폴란드, 크라쿠프)

2. 건축환경 걸작운동

□ 필요성

○ 눈부신 산업발전과 신도시건설 등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**세계에 내놓을만한 기념비적 건축환경 부재**

□ 혁신 프로그램

○ 모델프로젝트 지정 및 지원

- 지역 랜드마크, 초고층 복합구조물 프로젝트 기획
- 지자체, 공공기관 명품 만들기
- 전통과 건축문화가 살아 있는 걸작마을 발굴 지원

○ 올해 건축의 도시 축제'와 연계하여 걸작만들기 추진

-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건축환경가꾸기 사업으로 추진

3. 한국느낌 만들기 운동

□ 필요성

○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, 건축물, 교량 등 SOC시설물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이미지와 정서 확보 필요

□ 혁신 프로그램

○ 우수건축물 시상시 '한국느낌 부문 특별상' 시상

○ 한국느낌의 건축언어 발굴 지원

○ 모델프로젝트 지정 및 지원

- 한국느낌만들기 시범사업 추진(고속도로 휴게소 등)

건설기술 혁신운동

1. 건설공기 혁신운동

□ 필요성

○ 공기단축 의식부족 등으로 건설공기 장기화문제 해결 필요

□ 혁신 프로그램

○ 공기혁신 Best Practice 선정

· 주택공사의 공동주택 및 민간기업의 건설현장 선정

○ 현장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정보공유를 통한 성과확산

2. 건설코리아 명품운동

□ 필요성

○ 경쟁력이 확보된 분야(IT 등)와의 접목이나 전통소재의 발굴을 통해 **세계적 건설명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모색**

□ 혁신 프로그램

○ 10년내 5개의 세계일류 건설제품 확보를 목표

○ IT, BT, 디자인 등과의 접목을 통한 건설소재, 부품 개발

○ 황토, 온돌 등 전통소재 제품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모색

3. 아름다운 구조물운동

□ 필요성

○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구조물의 디자인 개선 필요

□ 혁신 프로그램

○ 우수건축물 시상시 '아름다운 구조물상 부문 특별상' 시상

○ SOC시설, 가로 시설물 설계경기 방식 시범 도입

○ 부문별 모델프로젝트 지정 및 지원

- 도로 및 교량부문, 하천, 철도 등

조형미 있는 육교(빌바오)

깔라트라바 다리(빌바오)

운하(샌안토니오)

Ⅵ. 추진계획

1. 추진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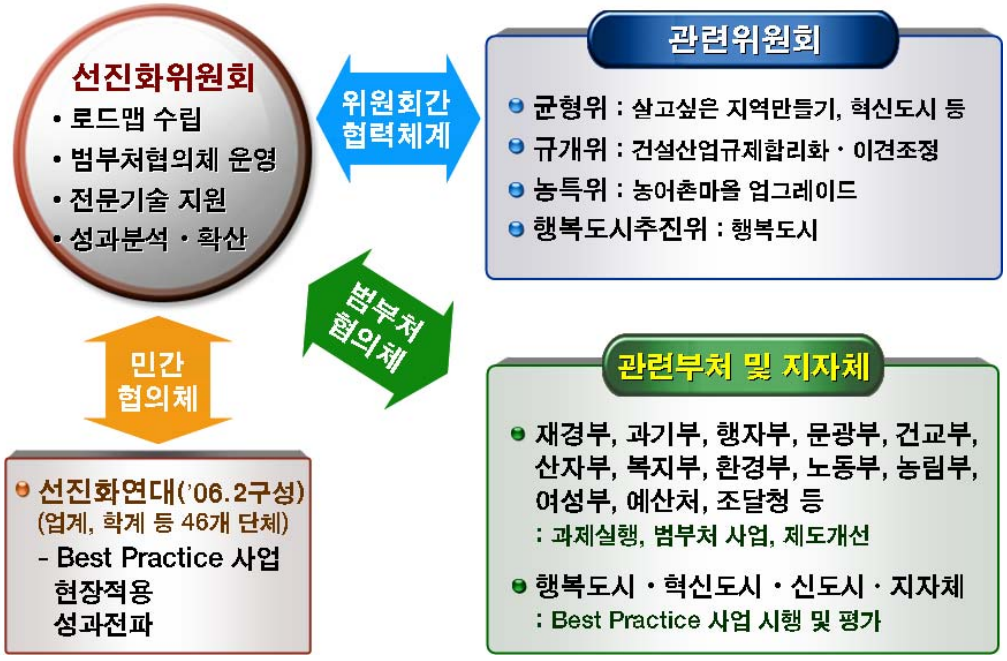
□ 균형위, 규개위, 농특위, 행복도시추진위 등의 위원회와 **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**

□ 선진화전략 추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**꾸준한 제도개선과 Best-Practice 사업 시행**

○ 범부처 시범사업 시행 및 법·제도 개선(발주·예산회계 등)

○ 행복도시, 혁신도시, 신도시 건설시 추진주체와 협력하여 Best-Practice 사업을 시행

□ 위원회에 설치된 민간협의체인 '건설기술·건축문화선진화연대'를 중심으로 혁신과제 적용, 현장실천 운동 전개



2. 추진일정

금년과 단기('07년), 중기('08년), 장기('15년)로 구분하여 체계적 추진

□ 금년('06년) : 선도 시범사업 착수

○ 건축기본법, 경관법 등 제정

○ Best Practice 사업 선정

○ 시범사업 근거규정 마련(행복도시 등에 적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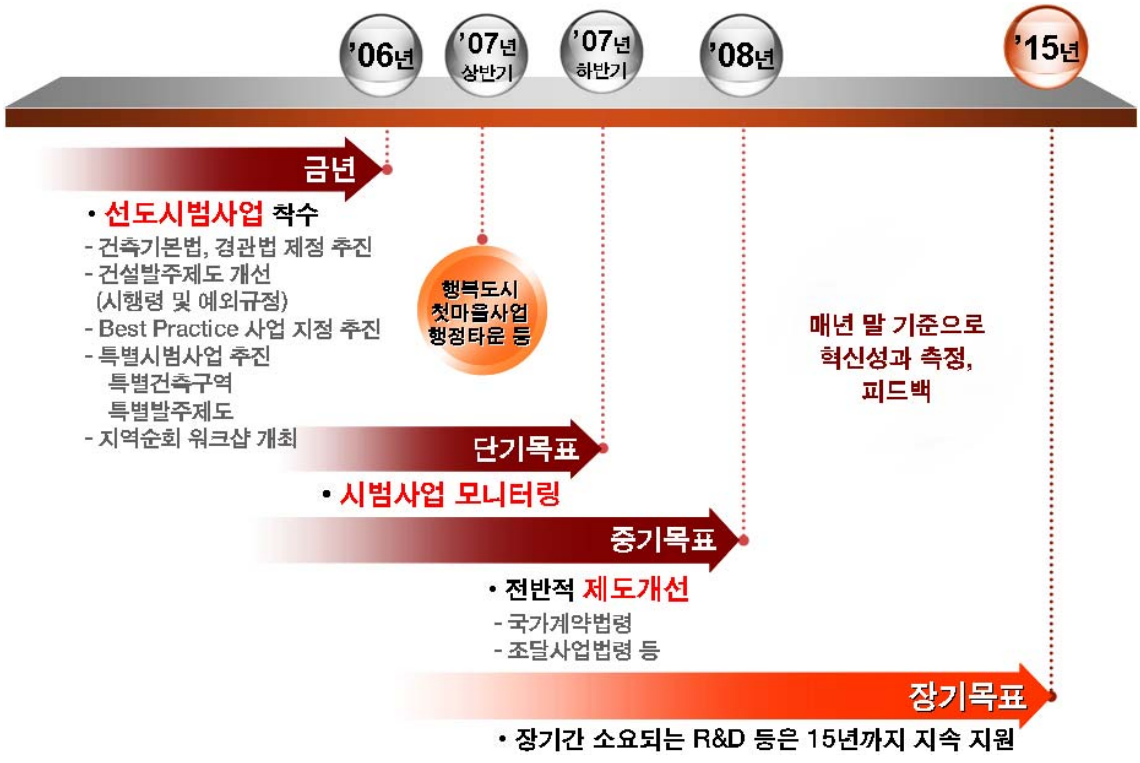
- 특별건축구역, 특별발주제도(예외규정)

□ 단기('07년) : 시범사업 모니터링

□ 중기('08년) : 법 개정 등 전반적 제도 개선

○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

□ 장기('15년) : R&D 등 장기과제 추진 및 지원착수



※ 붙임 : 세부 혁신과제 리스트

1 건축문화 혁신기반 조성

1. 창의·예술성 제고를 위한 건축/경관제도 정비
- ‘건축기본법’ 의 제정 - 경관협정제 도입 등을 위한 ‘경관법’ 제정 - ‘특별건축구역’제도 도입 - 건축 관련 법령(80여개)을 창의력 증진방향으로 재정비
2. 전문가에 의한 도시경관 관리
- 총괄계획가(MA/MP), 디자인커미셔너(DC)방식 제도화 -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품질 제고 대책 추진 - SOC시설 설계시 미관·예술성을 고려하는 제도 도입 - 설계경기 심사과정 공개 등 심사절차 및 기준 국제 수준화 - 신진 및 여성건축가 육성 및 지원 제도 - 공공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활용제도 도입
3. 건축문화 지원네트워크 구축
- 지역별 ‘건축도시주민지원센터’ 운영 - ‘건축도시연구원’ 설립 - ‘건축·도시문화관’/전원마을 체험·전시관 건립

2 공공선도 프로젝트 시행

4. 건축문화 이벤트 개최
- ‘이달의 건축환경문화’ 지정 - ‘올해 건축의 도시’ 지정 - ‘아름다운 건축물’ 지정 제도 도입 - 건축·도시문화자산 보전 및 복원

5. 좋은 건축물 프로젝트 기획
- 지역 랜드마크 프로젝트 기획 - 해외진출을 위한 초고층 복합구조물 건축 프로젝트 - 해양건축 및 해양공간의 디자인 선진화 프로젝트 - 에너지 저소비형 및 리모델링 기술 적용 시범 프로젝트
6.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시 공간환경 조성
-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 - 거점개발확산 주민정착형 주택개발 프로젝트 - 실버케어센터 지역 네트워크 구축 사업 - 지역친화형 공동주택환경 조성사업 - 매입다가구 주택을 활용하는 보육시설 네트워크 구축사업 - 스쿨파크(School Park) 조성 사업 - 일상적 생활 가로시설 디자인 개선 사업 - 한국고유의 느낌을 높이는 현대건축환경 시범프로젝트 (고속도로 휴게소, 공공청사 등 대상) - 지역별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정제 도입 - 농어촌 마을 업그레이드 사업 - 유비쿼터스 도시혁신 프로젝트

3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

7. 세계일류 건설브랜드 확보를 위한 R&D 프로젝트 추진
- 범부처 R&D 메가프로젝트 기획 및 시행 (초고층·공기혁신, 건강자재·신소재, 기준·시방서, 어메니티) - 친환경, 고기능 소재·부품 등 연관산업 육성 지원
8. 신기술 개발 활용 촉진
- 민간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(건설신기술활용지원 강화 및 성능보험제도 도입)
9. R&D 투자·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화
- 건설 R&D 투자확대 및 성과 확산 시스템 구축 - 건설 R&D 인프라 (연구인력, 시설 등) 확충

4 글로벌스탠더드 생산체계

10. 기술경쟁 중심으로 건설생산체계 개선
- 기술발전을 위한 '순수내역입찰방식' 및 설계변경 제한 원칙 도입 (건설업체가 공법, 사업비 등을 검토) - 국제기준의 다양한 발주방식을 도입하여 사업특성별 적용 (공기단축형 Fast-Track, 기본설계 후 디자인-빌드 등) -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건설사업관리(CM) 방식 활성화 - 발주자 교육 및 발주기관 재량권 확대 - 품질과 가격을 통합 고려하는 '최고가치 방식' 도입 - 부실업체 선별을 위한 입찰자격사전심사(PQ)제도 개선 (평가기준을 강화하여 기술에 대한 변별력 확보) - 시공위주의 건설업을 설계·구매·시공 일괄수행업체(EPC) 체제로 전환 (EPC :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) - 일정기준 이상은 계속비로 편성 원칙 제도화 (공기, 건설비 상승과 건설업 간접비용 상승요인 해소)
11. 건설기준의 국제화 및 설계 품질 제고
- 설계기준·시방서 등을 성능기준화 - Cost 절감, 고품질 설계를 위한 설계대가체제 국제기준화 ('공사비요율' → '실비가액'으로 전환. 과다설계 방지 및 VE 활성화) - 전문성을 강화하는 감리제도 개선 - 전문인 평생교육 및 경력관리제 도입 (건축사등록원 설립 및 건축사·기술사 개인경력관리 개선)
12.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네트워크 구축
-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한 민관협력 컨소시엄방식 추진 - 글로벌 전문가 육성 및 해외정보·인력 종합 DB 구축 - 교류활성화를 위한 민간차원의 통일대응 전략 활성화 -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건축/건설기술 혁신 선도 - 한국건설산업 브랜드파워 제고전략 수립

토론자료

공공발주제도 개선

2006. 6. 15

대통령자문 건설기술·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
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al Culture & Construction Technology

목 차

Ⅰ. 지금이 제도개선의 기회 ····· 1

Ⅱ.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····· 2

Ⅲ.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····· 3

Ⅳ. 쟁점 및 보완대책 ····· 4

Ⅴ. 특별시범사업 적용방안(행복도시, 혁신도시 등) ··· 5

Ⅵ. 토론사항 ····· 6

Ⅰ. 지금이 제도개선의 기회

○ 도시·건축물의 품격 고양과 기술·디자인 능력 중심의 경쟁체제 구축에 관한 **정부와 민간의 혁신 공감대 형성**

- 선진화위원회 설치, 입찰계약제도 및 **건설업역·하도급제도에 관한 규개위 활동 등 혁신 추진**

- 공공발주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포함한 **민간의 혁신 요구 강화**

※ 건설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설업체 CEO 설문결과 : 입낙찰제도(30.3%), 건설업역 제한(12.3%), CM·감리제도(12.3%) 등

※ 경실련 등 시민단체 : 지속적인 최저가 확대, 운찰제(적격심사제) 폐지, 턴키남발 금지 요구

○ 행복도시, 혁신도시 등 최고의 기술과 문화가 결합 가능한 **구체적이며, 훌륭한 시범공간**(Test-Bed) **확보**

※ 경관 및 발주제도에 대한 특별 시범사업 시행을 통한 새로운 기술 및 제도 도입, 창의적 설계 활성화 유도

○ 풍부한 시범공간을 활용한 **글로벌스탠더드 제도에 의한 경험을 토대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**하는 전략 필요

※ 삼성의 버즈두바이 초고층 빌딩, 대우의 베트남 신도시, 두산의 담수화플랜트 등의 성과는 민간기업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사례

○ 쾌적한 고품격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**디자인 능력, 기술력 중심의 경쟁체제가 필수적**

Ⅱ.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

○ 공정성·투명성에 대한 강조, 발주기관의 발주·평가능력 부족으로 인해 **발주제도의 왜곡 심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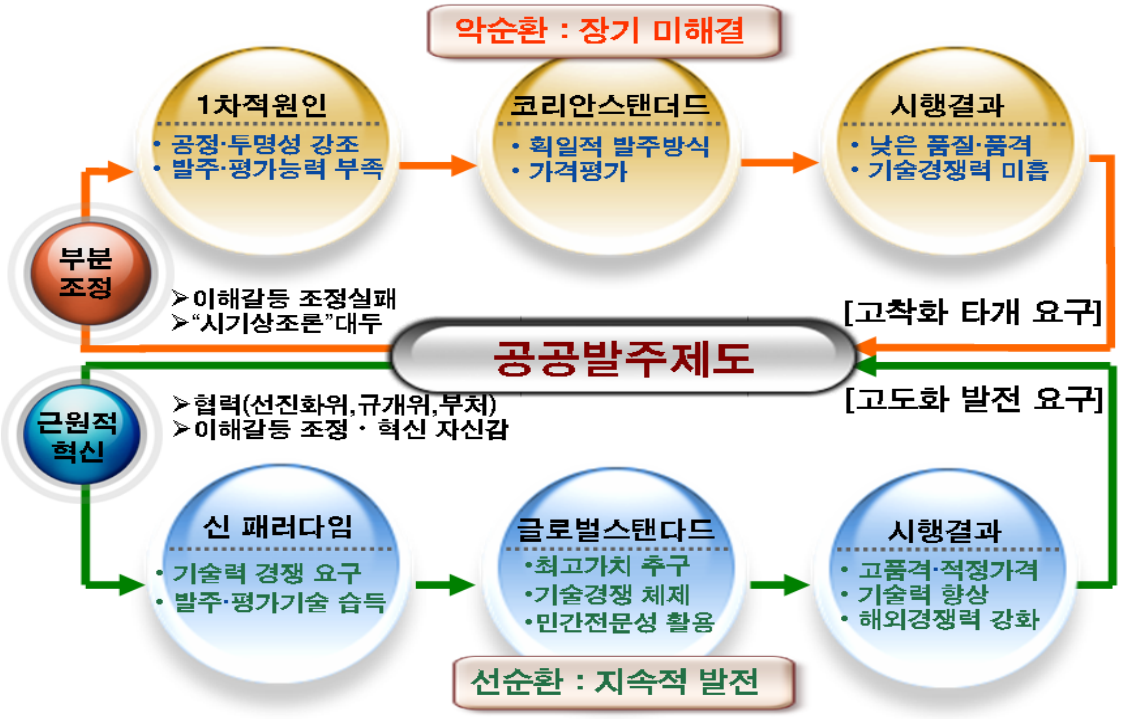
※ 획일적 발주방식, 가격평가 입낙찰제도, 중앙집중조달제도 등으로 낮은 품격 초래, 기술경쟁력 저하 등 악순환의 고착화

○ 이해갈등 조정실패, 기술부족에 따른 시기상조론 등으로 **발주제도 문제의 장기 미해결 및 부분적 조정 되풀이**

※ 건설산업 구조개편방안('00.4),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('02.10), 건설산업의 선진화전략('05.1) 등 기존대책들의 성과 미흡

○ 기술력 경쟁 요구, 발주·평가기술의 습득 등 **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발주제도의 고도화** 추진 필요

※ 최고가치 추구, 기술경쟁 시장체제 구현, 민간의 전문기술력 및 창의 활용 등 글로벌스탠더드 전환 추진



Ⅲ.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

○ 현행 설계·시공·감리간의 연계성 부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건설사업관리(CM)체제로 전환 촉진

※ 건설업체 CEO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, 향후 10년간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역량으로 기획 및 관리능력(55%) 차지

※ 기획 및 관리능력 확보에 필요한 전문분야로는 프로젝트 관리(31.4%), 리스크 관리(18.6%)의 중요성 강조

○ 일관된 디자인 관리체계가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**총괄관리자(MA/MP)제도 및 디자인커미셔너(DC)제도 도입**

○ 현행 가격경쟁 위주의 설계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**다양한 방식**(지명·공개 등)**의 설계경기 확대 추진**

※ 현재 일부 건축물에서 시행되는 설계경기방식의 적용을 대폭 확대하고, SOC시설물에도 설계경기 적용 및 확대를 추진

※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상의 분류대상 시설물중 상징성, 예술성,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은 설계경기 방식으로 전환

○ 공사의 특성 고려가 곤란한 중앙집중조달방식을 개선하여 **사업의 특성과 발주능력에 따라 발주자의 선택폭을 확대**

※ 발주기관의 사업특성별 발주방식 선택, 발주업무 지원과 능력 향상,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발주매뉴얼 마련

○ 품질 및 기술발전과 무관하게 가격으로 결정되고, **운찰제 형식으로 운영된 입낙찰제도를 최고가치 지향으로 전환**

※ 최고가치낙찰제 도입,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확대 적용, 현행 입낙찰과정에서 경쟁력있는 대안 제시의 허용 등 추진

Ⅳ. 쟁점 및 보완대책

○ 공공발주제도의 개선과정에는 발생되는 관련주체간 **다양한 쟁점은 글로벌스탠더드에 기반 한 보완대책**으로 해소

○ 발주방식에 대한 다양한 이견은 최고가치·기술경쟁의 공감대 형성과 **다양한 발주방식 선택의 폭 확대로 보완 추진**

○ 중소기업·대기업간 이견은 **수평적인 협력관계 조성과 상호보완적 기술능력 향상으로 보완**

※ 중소업체(전문성·기술능력 향상), 대기업(종합사업관리능력 향상)

○ 발주제도의 개선에 관한 위원회 차원의 Best-Practice **특별 시범사업 시행 및 제도화 병행 추진** 필요

쟁 점	보 완 대 책
▪ **발주방식에 대한 다양한 이견** · 최저가, 적격(중소업체)↔턴키(대기업) · 최저가(NGO)↔기술·품질경쟁(정부) · 객관성·경제성 중시(재경부) ↔ 품질(건교부)	▪ **다양한 발주방식 제시, 선택폭 확대** · 최고가치 등 다양한 글로벌스탠더드 제도 도입 · 발주능력, 사업특성을 고려한 발주방식 선택 · 발주매뉴얼 제정으로 공정성, 투명성 확보
▪ **기술대안 허용에 대한 이견** · 대기업·기술력 있는 중소업체 찬성 · 다수 중소업체 반대(수주 불리 예상)	▪ **기술대안 허용 단계적 확대** · 주계약자형 공동도급, 분리발주 등 중소업체 수주확대 병행 · 입찰기술력 강화 등 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
▪ **발주/조달기관의 능력 부족** · 중앙조달기관의 업무폭증 우려 · 발주기관은 감사, 공정성 의식 신중 입장	▪ **발주/조달기관 협력 및 단계별 확대** · 기술검토(발주기관), 가격검토(조달기관) 협력(CM 등 민간의 기술력 적극 활용) · 발주자 교육 강화, 시범적용 등 점진적 확대
▪ **발주자 재량권 확대시 공정성, 투명성 확보 문제**	▪ **공정성, 투명성 확보 보완대책 시행** · 설계변경금지 원칙, 부정행위시 사업권 박탈 등

Ⅴ. 특별 시범사업 적용방안 (행복도시, 혁신도시 등)

○ 발주제도 개선은 장기적인 이해갈등조정이 필요하므로 **우선 시범사업 시행을 통한 성과 검토 후 제도개선 시행**

○ **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범위**내에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운영

※ 특별시범사업 시행 근거규정(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 등)이 '06.12까지 마련되어야 가능

○ **중장기 대책으로는 관련법 개정**을 통해 범부처적 제도개선을 추진하며, 모범사례 발굴 전파

- 시범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혁신도시, 기업도시 등에 성과를 확산하고, 위원회 차원의 지침 제시

Ⅵ. 토론사항

○ 사업의 특성에 따라 **다양한 발주제도 중 선택 시행**하는 방식 도입

- 설계경기, 총괄계획가(MA/MP)/디자인커미셔너(DC), 최고가치 낙찰제 등

○ **발주자의 자율성 확대**와 조달방식의 선진화

- 상호협력방안, 발주기관 전문성 향상, 중앙조달방식 재검토, 국가계약법령 선진화

○ **성공적인 특별시범사업 추진**을 통한 성과 확산

- 특별시범사업 근거규정 마련, 특별건축구역 도입관련 사항
- 혁신도시, 기업도시 건설 등에 확산

※ 공공발주제도 개선 추진방식

- 위원회 또는 단일부처만으로는 추진에 한계
- 청와대 및 경제정책핵심부처 주관으로 추진 필요 (선진화위, 규개위 등 관련위원회, 기관의 적극 참여)